

鐵로 누르는 이외 더 손을 대지 않고 선자에 신경을 집중하여 이 부분에서 校正을 企圖하였다. 선자를 다루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었던지 그것도 省略하고 원래의 맥이를 잘도산방으로 적절히 조절하려 하였다. 말하자면 이 공사는 음습주리에 해당된다고나 할 그러한 施工方案에 따라 進行되었다.

지붕은 毅然 우진각지붕으로 이 形態는 南大門後半期の 面貌로 維持되었다.

四次的 工事は 手法으로 보아 十八世紀後半이나 一九世紀初에 施工되었으리라고 推定된다.

南大門에서 가장 興味있는 課題는 第三期의 工事年代를 考察하는데 있어 가장 重要な 屋蓋를 變造하면서도 아무런 記錄을 남기지 않았던 時期는 과연 언제이었을까 이때는 우진각지붕에 팔각지붕보다 어떠한 趨勢에 따라 效用價値가 높아졌을 때이다. 팔각지붕을 改造하면서까지 그 潮流에 따르고저한 風潮가 汎濫하던 時期이었을 것이다. 이는 多分히 外部의 影響이 있을 것이고 이는 強力한 作用을 加하였을 것이다.

壬辰亂에 燒失된 宮闕을 復舊하기 시작하여 차츰 면모를 一新하기 비롯한 것은 光海君年間 부터이다. 이 기간에 昌德宮과 昌慶宮 등 模範의 宮闕도 造成되었다. 昌德宮과 昌慶宮의 建物들은 大部分 舊基에 復古되었는데 그 手法과 外樣도 옛모습을 따랐는지는 未詳하다. 옛모습이었던지는 分明치 않더라도 敦化門과 弘化門이 正殿 등 諸建物과는 달리 우진각지붕을 갖게 되었다.

李朝前期建物로 指目되는 開城南大門, 平壤普通門 등의 城郭樓門과 後期에 속하지만 全州豐南門을 비롯한 邑城의 樓門 등이 대부분 팔각지붕이고 別宮, 祠堂, 寺宇의 正門 등이 대부분 팔각지붕인데 유독, 敦化門, 弘化門, 南大門, 東大門 등 서울의 威嚴裝飾의 建物들만이 우진각지붕을 갖었다. 이는 外部의 影響의 反射的인 感得이라고 解釋할 수 없을 까.

明末清初에 北遼의 影響이랄가 우진각지붕이 盛行하게 된 氣運을 李朝에서도 재빨리 受容하였다고 한다면 光海君年間的 敦化門, 弘化門의 우

진각지붕도 전혀 우연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南大門의 물매 추녀와 사례의 양쪽 등의 手法이 前期 敦化門이나 昌德宮과 並行한다고 하면 전혀 案外의 일이었을까.

第三次의 重修는 이러한 時期, 光海君年間 늦어서 仁祖年間쯤으로 推定하여 보면 어떨까. 敢히 同學諸位에게 問題를 題起하고 敎示를 바란 다.

## 오금집과 덩빙·柱礎

金 東 賢

오금집은 建築用語로서 널리 알려진 말은 아니다. 오금집이 建築用語로서 언제부터 使用되었으며 어떠한 理由에서 오금이라는 말이 생겨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 古建物에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몇몇 建物(浮石寺 祖師堂, 雙峰寺 大雄殿, 傳燈寺 大雄殿 및 藥師殿等)의 建築年代를 보면 高麗末 李朝初로부터 이러한 手法이 傳來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筆者가 처음으로 오금집이란 用語를 듣게 된 것은 故 林泉先生님으로부터 西紀一九六一年 江華郡 吉祥面 所在 傳燈寺 大雄殿 및 藥師殿의 實測調査를 進行中 듣게 된 것이 最初이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오금집에 關하여 이렇다 할만한 充分한 科學的인 根據資料를 얻지는 못하고 있으나 다만 오금집에 關한 構造의 事實과 意匠 및 力學的인 效果에 對한 簡單한 資料紹介와 오금집과 덩빙·柱礎가 密接한 關係에 있다는 點에 對하여 筆者의 意見을 紹介하고자 한다.

### 一, 오금집의 構造

外列柱가 垂直線上으로부터 기둥머리 部分을 建物의 重心點을 向하도록 안솔림시켰으며 이에 따라 栱包가 안솔림되었다.

안솔림의 寸數는 建物 規模에 따라 그 度數가 一定치 않으나 傳燈寺

藥師殿 및 大雄殿의 境遇에는 一寸 程度의 安竝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寸數의 變化는 柱高의 高低에 따라 差異가 생길 것으로 본다.

이러한 構造에 따라 여러가지 問題點이 있으니

첫째 拱包、道里、樑等의 施工上의 難點

둘째 定柱의 困難

셋째 기둥뿌리 部分의 處理 如何

네째 柱礎石의 定礎 問題

들을 들 수가 있다.

### 二、意匠上의 效果

建築意匠이 우리들의 精神에 주는 感覺을 여러가지로 分析하여 보면 그들의 要素를 表現시키는 方法은 形體의 크기 色彩의 選擇等이지만 이것은 感覺上의 問題인 故로 大部分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幾何學的 公式에 따라 表示하기는 困難하다.

또한 同一한 建築意匠에 對하여서도 보는 사람에 따라 感覺이 다르기는 하지만 大體로 그 傾向은 같을 때가 많다.

오금집의 기둥을 안솔림 시킨 것은

첫째 安定感을 준다.

둘째 動的이다. 動은 變化다. 卽 建物의 形體의 變化를 暗示하였다.

變化方向은 垂直 또는 水平方向이 좋은데 이 오금집의 境遇는

기둥은 垂直方向에서 變化가 있고 拱包部分은 水平에서 變化가 있다.

셋째 輕快하다. 動的인 要素가 內包되었으니 輕快한 建物이 된다.

上記와 같은 要素는 기둥을 안솔림 시킨 한가지의 原因으로부터 三가지의 意匠上의 效果를 얻게 하였다. 이는 한가지로 말한다면 錯視를 잘 利用한 結果라고 말할 수 있다. 人間의 視覺은 物體를 明確히 보기 어렵다. 이 視覺의 錯誤를 錯視라 하는데 이를 오금집에서만 生覺할 것이 아니라 좀더 넓게 다른 部分에서도 찾아 보아야 할 줄로 안다.

### 三、力學上의 效果

오금집에서 기둥이 안솔림 되므로서 上部의 垂直荷重을 柱礎에 傳達

하는데 기둥을 垂直으로 세운 것과 어느 程度로 그 效果가 큰가를 안솔림의 大小가 問題되었지만 柱高가 十尺 內外에서는 一寸 程度의 安竝함으로서는 크다란 差異點이 없을 것이며 단지 *Batter* 現象이라고 斷定해서 말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嚴密히 말하자면 오금집 柱는 一種의 斜材이므로 橫力 卽 水平力에 對하여 支持力이 垂直柱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다.

特別히 말하여 두고 싶은 것은 오금집의 境遇와 같이 斜材柱(嚴格히 말해서)를 使用한 建物은 拱包部分의 變位度가 鉛直柱보다 작다는 事實이다. 上部로부터의 垂直力으로 拱包部分이 壓縮되기는 하지만 水平方向으로는 變位되지 않는 것은 안솔림기둥(斜材柱)이 橫力에 對한 支持力때 문이 아닌가 본다.

특히 古建物을 仔細히 觀察하면 거의 大部分이 水平및 垂直材이지(椽木 및 浮椽은 構造材가 아닌) 斜材를 使用치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겨우 使用된 것이라면 宗樑上의 소슬臺工과 柱間에 소슬花盤程度로서 意匠의인 裝飾材이지 構造材로서의 斜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斜材의 不利用은 建物의 壽命에 까지도 그 影響이 一部分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翼工집에서의 樑奉이나 柱心包집에서 서의 行工 및 頭工等은 裝飾材이면서도 拱包 그 自體의 變位를 막는데 약간의 構造材인 役割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局部的인 構造材에 불과하지 建物全體에 커다란 力學上의 利點이 되지는 않는다 實測中에도 몇번이고 斜材의 必要性을 切要하게 느낀 때가 許多였다.

### 四、오금집에서의 덤벙柱礎

덤벙柱礎는 흔히 쓰는 用語이지만 무엇때문에 덤벙柱礎를 使用했는가를 밝힌 事實은 없는 것 같다. 덤벙柱礎라 하면 그 語感自體가 庶民的이고 親近感이 간다. 오금 亦是 그렇다 오금, 덤벙이 두 用語가 서로 關聯되는 傳說을 內包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밝혀질 날이 있으리라 고 希望을 걸어두고 여기서는 다만 오금집의 境遇 덤벙柱礎를 必要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몇가지 理由만을 들고자 한다.

기둥을 안을림 시킬 境遇 기둥의 中立軸은 垂直線上으로부터 角度를 갖게 된다. 礎石이 정다듬된 一水平面上의 石材라면 角度를 가진 기둥을 받기는 어려운 일이다. 勿論 定礎後에 기둥뿌리를 傾斜지게 마음길 하여 定柱할 수는 있겠지만 上部荷重을 垂直으로 地盤에 傳達할 수는 없다. 故로 다듬질된 礎石을 약간 傾斜시키고 그 위에 定礎하였으리라 生覺된다. 柱材의 마련이 困難하고 길고 짧은 기둥을 配列시키기 爲하여서는 不可避하게 덤벙柱礎를 使用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겨우 一~五寸 程度の 크기차라면 疎忽히 덤벙柱礎를 使用했ellig 없었다고 본다. 그런 點들을 미루어 볼때 오금집에서의 덤벙柱礎 使用이 必然의인 것이 아닌 가 한다.

以上 列記外에도 여러가지 問題點들이 오금집에 內包되었을 것이 고재미 있는 事實들이 있을 것이나 뒤로 미루고 簡單한 紹介로서 그치려 한다.

## 資料

### 康津 沙堂里出土 青磁象嵌發願文片

崔 淳 雨

高麗陶磁器中에 佛敎的인 發願文을 刻銘한 例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었다. 다만 洪武二十四年(一三九二), 즉 李成桂가 王位에 오르기 前年에 아직 이루어지 못한 그의 大望을 은근히 佛陀에 誓願한 發願文을 刻銘한 白磁의 例(註一)가 있었지만 이것은 粗製의 큰 白磁砂鉢에 陰刻한 高麗亡國直前의 것이었다. 여기에草하는 이 青磁象嵌發願文片에 關한 一文은 지난봄(一九六五) 우연히 美國人 夫人이 찾아와서 그가 康津郡 大口面 沙堂里 窯址들을 踏查했을 때 沙堂里의 어린 少年에게서 사왔노라는 青磁象嵌 斷片에 關한 것이다. 이 破片은 青磁陶板에 黑象嵌으로 가득히 銘文을 채넣은 높이 一·五cm 폭 一·二cm 두께 一·二cm 内外의 보기로 문 銘象嵌片이었는데 釉質로 보나 字體로 보나 十一, 三世紀를

第六卷 第十一號 通卷 六十三·六十四號

더 내려오지 않을 早期의 青磁象嵌이라고 생각된다. 그 銘文의 內容은 亡母의 冥福이며 이 斷片은 原來的인 完形陶板의 中下位의 部分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즉 白象嵌의 等行雙線이 이 斷片의 下端에 남겨진 것으로서 下端 境界를 表示하고 있으며 現在 남아있는 銘文은 十行八十六字이다. 그 全文은 다음 挿圖와 같다.

이 陶板이 普通 墓誌銘陶板類와 다른 點은 背面에는 施釉를 하지 않았고 또 이 背面마무리에는 손자욱으로 이루어진 큰 心圓이 동글게 남아 있는 點이다. 이 心圓에는 손끝으로 마무리된 손가락 자욱이 四個所가 남아 있는데 이 손자욱에는 역역한 指紋이 남아 있어서 可愛로울다.

이 背面素地의 發色이 짙은 黃土色을 내고 있는 것은 이 陶片이 完全還元燒成되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요 따라서 表面의 釉調도 淸雅한 發色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釉裂이 거의 없고 釉澤이 온전한 점은 早期青磁

